2020 여름호(Vol. 44)

서신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 : 6

계간 서신원 2020년 2(여름)호, 통권 44호
발행인 현유광 | **편집인** 장석조 | **창간일** 2010년 9월 9일 | **발행일** 2020년 6월 25일
발행처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출판부 |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4가길 45-1
전화 02-845-7711 | **홈페이지** http://www.sb.ac.kr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SEOUL BIBL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

총장 **현유광**

'그리스도인'(Christian)은 주일에 예배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미네소타 주 세인트 폴(St. Paul)에 우들랜드 힐스 (Woodland Hills)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담임목사인 그렉 보이드(Gregory Boyd)는 2004년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자는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헌신적인 삶에로 교인들을 초대하고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 약 5천명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중 약 천 명의 교인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나는 기독교인으로 살고는 싶지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는 않다."일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church-goer)입니다.'기독교인'은 주일이 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Christian)은 주일에 예배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사태로 말미암아 약 두 달 동안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거리두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한이 있긴 하지만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동안 인터넷 예배를 하다 보면 교회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귀차니즘에 빠져서 '가나안 교인'으로 전락하기 십상입니다.

이런 상황은 내가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를 분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한테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마음에 평화를 얻기 위해서였다면 그는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4자성어에 감탄고토(甘呑苦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거나, 유익과 달콤함을 줄 때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고 귀찮고 손해가 날 것 같으면 그만 두는 형편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라는 신분을 드러내는 말이기에 그렇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대답하려면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단지 '기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교회가 힘을 얻으며, 우리의 이웃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아름다운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뉴욕교회

“오직 성경”이라는 순장 교단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으며 순수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청교도 신앙을 계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담임 김성기 목사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서신원 교직원 분들과 학우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 경제와 문화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뉴욕에 있는 ‘뉴욕교회’는 1977년 9월 4일에 다섯 가족이 모여 첫 집회를 시작한 교회입니다. 서신원 총장을 지내신 노왈수 목사님께서 1대 목사로 섬겨주셨고, 20년 목회 후에 니카라과 선교사로 자원하여 복음을 위해 생명을 드리신 김은철 목사님께서 3대 목사로 섬겨주신 교회입니다. 저는 2013년에 부임하여 4대 목사로 7년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뉴욕교회를 소개한다면 한 마디로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며 세계 선교의 열정을 가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의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은 물질주의와 종교다원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들(인본주의, 세속주의, 동성애 등)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권좌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뉴욕교회는 “오직 성경”이라는 순장 교단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으며 순수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청교도 신앙을 계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뉴욕교회는 세 가지 비전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첫째, 개혁교회(Reformed Church)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삶의 기준이 없는 이 시대 속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만인 제사장”을 외쳤던 개혁자들의 믿음과 신앙을 계승하며 전수하는 개혁교회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와 성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아, 이민 1세대를 넘어 2세대, 3세대까지 개혁신앙을 지키고 전수하는 교회로 굳게 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둘째, 제자교회(Disciple Making Church)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 다른 민족, 다음 세대를 제자 삼는 교회’가 바로 제자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창세기 - 요한복음 -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3년 과정의 제자훈련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주권 신앙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된 삶을,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과 교회와 선교를 배우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먼저 훈련받은 수료생들이 목자가 되어 일대일 양육과 제자훈련 창세기, 요한복음 과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훈련을 수료하고 평신도 부부 선교사로 파송되어 니카라과에서 대학생, 청년들을 제자 삼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훈련을 수료한 장년제자와 청년제자가 힘을 모아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 오렌지 사역(교회와 가정이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사역)을 힘있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이분들을 중심으로 고신 교단의 주일학교 커리큘럼을 영어로 번역하며 성경 중심의 개혁주의 주일학교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이는 고신 교단 차원에서도 숙원 사업이어서 총회교육원에서도 깜짝 놀라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야말로 평신도 사역자들이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교회가 바로 우리 뉴욕교회입니다.

셋째, 지역교회(Neighborhood Church)의 비전입니다. 교회 안과 밖에 어려움을 만난 분들에게 사랑과 돌봄과 섬김을 통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되어주는 지역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지역에 힘있게 나타나 많은 영혼들이 새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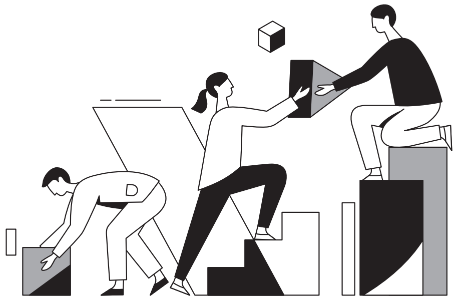
이처럼 우리 뉴욕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서신원에서 공부하던 때가 기억납니다. 비록 우리 학교가 작은 학교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전통만큼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인정과 순종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탁월한 말씀 선생으로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목회의 현장이건 학문의 현장이건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회의 길을 걷고자 하시는 분은 분명한 ‘교회론’을 정립하면 좋겠습니다.

순교신앙의 전통을 가진 학교에서 개혁주의의 탁월한 가르침을 주시는 교수님들께 배우는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저희도 서신원이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의 권위를 가장 높이는 개혁신학의 산실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남부노회!

서정환 목사(남부 노회장)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 귀한 교수님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이 교단을 넘어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신학도들 사이에 퍼져 나가면서 신학교 학생 모집이 쉽지 않은 시대에 교단 신학교에 학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에 대하여 현상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상금도 걸었습니다. 이 공모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최고의 아이디어는 평범한 보통사람에게서 나왔고 그 답이 뜻밖이었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신학교와 노회 지 교회는 어떤 관계일까? 수도꼭지와 수원지로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나옵니다. 이는 수원지로부터 각 가정으로 연결된 파이프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지의 물이 깨끗하면 좋은 물이 각 가정으로 공급될 것입니다. 교단 신학교인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 귀한 교수님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이 교단을 넘어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신학도들 사이에 퍼져 나가면서 신학교 학생 모집이 쉽지 않은 시대에 교단 신학교에 학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일로 본 교단, 노회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대 교단, 대 교회를 선호하는 한국 상황에서 어떻게 신학교가 이 좋은 기회를 선용할 수 있을까? 교단과 노회는 이 일에 어떤 역할을 해야할까? 많이 기도하며 고민합니다. 이제까지 교단과 신학교는 함께 가는 좋은 친구 이상으로, 한 몸이 되어 걸어왔습니다. 그럼에도 군소 교단이 갖는 한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빠트려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은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않으시고,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이 못하실 일은 없었지만 육체를 지닌 주님으로서 하기 힘들고 주저되는 일이라도 해야 할 일이라면 죽음의 길도 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본 교단 신학교인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위에 은혜를 부어 주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노회의 지 교회들과 총회가 신앙의 수원지 같은 교단 신학교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선지동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좋은 친구 이상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고, 더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작지만 영향력 있는 신학교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총회와 노회, 지 교회, 교단의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서울성경대학원대학교의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과 신학도들, 그리고 교직원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중부노회!

류성은 목사(중부 노회장)

노회와 학교가 서로 소통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를 위해 노회와 학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를 정리해보려고 하니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학교는 노회에 속한 각 지교회가 필요로 하는 목회자를 양성하고, 노회는 목회자로 잘 훈련되고 양육된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더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당연한 일을 적어 놓고 보니, 노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여러 능력을 가진 목회자들은 배출이 되고 있는데, 그들을 모두 받아들일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회가 학교에 원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노회에 바라는 바를 인식하고, 인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해결해야할 문제겠지요.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를 해결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이 죄송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방안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노회가 기꺼이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을 수 있도록 신앙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노회가 듣고 인정하여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반가운 마음으로 후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말이지요.

우리 예천교회는 개척을 하여 지금에 이른 공동체입니다. 제가 목회학석사 과정 중에 있을 때, 2004년 당시 신천교회(현 신원예닮교회)가 전적으로 후원을 했고 저를 담임목회자로 파송하는 형식의 성경적인 개척을 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했던 제가 가진 단순한 비전을 보시고, 힘을 다해 도와주신 분들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같았던 제가 우리 교단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남부노회에 속해 있던 신천교회의 후원은 제가 전적으로 목회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실어 주었지요.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목회학 석사과정에서 훈련을 받으며 교단에 속한 교회를 섬기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교류하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공유하고 기꺼이 협력할 수 있는 동지들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현실의 조건에 맞추어 개척을 하거나 아무런 비전 없이 흐름에 따라가는 사역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부족한 저의 소견입니다.

다른 노회는 몰라도 현재 중부노회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에 대해 무조건 반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함께 동역할 목회자를 찾는데 합당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충을 알고 학교는 더 열심히 가르치고 있으며, 노회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잘 준비하여 어려운 노회의 형편임에도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는 마음을 일으키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내일의 우리 교단을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목회자들이 계속 배출하는 학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입학하면서

목회학과정(MDiv)
최선옥 원우

지난 해 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하여 학교를 알아보던 중 지인 목사님으로부터 본교를 추천받았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교수진이 뛰어나며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라는 것이 그 추천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일단 학교를 방문해서 안내를 받아보자는 마음에, 미숙한 운전 실력으로 학교를 향해 차를 운전하여 왔습니다. 초행길에 시장통을 가로지르고 가파른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며, 꼬불꼬불한 갈래길을 헤매면서 순조롭지 않은 여정?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이마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짜증과 화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학교 표지간판을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바람에 다시 후진을 하려다가 내림 경사길에서 미끄러져 근처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의 후면에 앞범퍼가 거의 부딪힐 찰나에서야 정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더 이상 운전을 하다간 큰 사고를 낼 것 같아 브레이크를 잡아둔 채 이 상황을 어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 오는 게 아니었어!" 애매하게 학교를 탓하며 이건 학교에 등록하지 말라는 뜻인지도 모른다고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말을 내뱉으며, 그러나 기도밖엔 방법이 없어 마음을 추스르고 잠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학교 측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학교에서 한 청년이 전화를 받고 구조?를 위해 제게로 와주었고 그의 도움으로 사고 없이 무사히 학교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좀 과장하면 그때 그 청년은 '빛나는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자'처럼 보였었습니다. 청년은 곧 어디론가 사라져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였는데, 그 일로 인해 학교에 대한 급호감이 생겼습니다. 학교 건물의 첫 인상은 수도원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벽을 덮고 있는 짙은 초록의 윤기 가득한 담쟁이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선 건물을 돌아보고, 자신을 교무처장이라고 소개하시는 교수님을 만나 입학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유쾌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고 본교에 입학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맞이한 올해 2월,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출석수업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면수업이 안되니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출석을 인정하신다 하여 계속해서 책을 읽고 독후감 내지 요약을 써내는 것이 일과이었습니다. '대학원 공부는 이런 건가 보다' 생각하고 과제로 낸 책들을 열심히 독파하였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상태가 좋지 않아 자꾸 끊기고, 집중은 되지 않고 해서 불만이 생기기도 하였지만, 스스로학습 훈련으로 인한 유익도 많았습니다. 드디어 대면수업이 이뤄지던 날이 기억납니다. 첫 대면 수업은 설교학개론 수업이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과목에 대한 선입관이 있어서 기대 없이 출석을 하였다가 담당교수님의 강의에 "예상치 못한 기쁨"을 누리고 공부에 대한 열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점차적으로 다른 강의들도 대면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강의와 질의, 문답을 통해 많은 도전과 배움의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 "신학은 송영이다"라고 명쾌하게 정의해주신 이 동영 교수님, 교육학이 즐겁고 유익하며 실제 적용점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신 현 유광 총장님, 성경적 상담으로의 방향을 제시해주신 양 창석 교수님, 히브리어 성경 창세기 1장 첫 구절을 읽는 감격을 선물해주신 박 영복 교수님, 설교 한편을 준비하는 것은 책 한권의 창작에 준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신 이 정현 교수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주신 장 석조 교수님 등, 모든 교수님들이 매 강의마다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셨고, 일대일 개인 질문에 대해서도 성심껏 답해 주시는 겸손과 섬김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덧 종강이 다가오고, 미처 완료하지 못한 과제물과 시험 등에 중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기쁨과 누리는 복에 비하면 이는 기꺼이 치러내고 감수할 수 있겠습니다. 사역과 겸하여 공부하느라 지난 두 어 주간, 과로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겨 주변에 걱정을 끼치기도 하였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어 감사할 뿐입니다.

내 생애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찬양하며 누릴 수 있는 이 복은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듯 건강과 환경과 여러 여건들을 허락하셔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으니 이 또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배움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찾으시는 분이란 것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라는 여정, 처음 가보는 길을 한없이 미숙한 운전 실력으로 핸들을 꼭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갈래갈래 길이 놓여진 그곳을 두리번거리며 성경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때론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좁고 가파른 곳에서 사고를 두려워하며 쩔쩔매기도 하고, 잘못 들어서 막힌 길 거꾸로 돌아가기도 할 때, 여전히 함께하시고 인도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제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며 두 손을 들 때 주님은 제게 참으로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서울성경신학대학원은 저로 하여금 정확한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막히고 위험했던 길 위에서 만난 '도움의 손길'이요 바르고 안전한 종착지로의 '친절한 안내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졸업하면서

졸업생 조윤택
(원우회장)

“서신원에서 공부하면서 좋았던 것은 학교의 가치관으로 비롯된 커리큘럼입니다. 서신원은 성경을 최우선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목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쨍한 푸른빛 수트를 차려입고 신대방역에서부터 좁은 골목길을 올랐습니다. 신학교를 다닌다하여 단정한 옷을 입고 싶지 않았던 저이기에 어김없이 이 날도 그랬던 것이지요. 그런데 면접관님 중 한 분이 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머리는 노랗게 물들어 있고, 빨간색 뿔테안경에 나비넥타이를 하고 앉아계신 분이 계신 것입니다. 저분은 누구지? 이 학교에 음대가 있나? 분명히 신학 교수님이실 텐데…하면서 동질감을 느꼈던 면접날이었습니다.

이제야 말하는데요. 학교를 입학한 이후부터 저는 이 교수님을 참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조직신학의 이동영 교수님이십니다. 의상에 자유하지만 그 자유함이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며 조직신학을 전공하시고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열변으로 강의하는 교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딱 제가 걷고 싶은 길은 먼저 걷고 계신 교수님이셨던 것이지요. 이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는 의상마저도 존경스러운 멘토 스승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저는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비전으로 품고 있습니다. 찬양인도는 초등부 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20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찬양 컨퍼런스를 다녔으며 예배에 관련된 많은 강좌를 수료하였고 백석예술대학교에서 교회실용음악을 전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답답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찬양을 부르면서도 성경적 지식이 없어서 또는 깊이가 얕아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성경을 꼭 배워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6월 24일에 신원예닮교회에서 자란 자매와 결혼을 하였고 주례를 해주신 이재성 목사님의 제안으로 신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찬양사역을 해보자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찬양하다’라는 말은 그분의 가치를 이해하고 삶에서 느끼고 그분께 반응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서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궁금해 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며 하나님의 놀라움에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무지했던 음악쟁이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곳 서신원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마지막 학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신원에서 공부하면서 좋았던 것은 학교의 가치관으로 비롯된 커리큘럼입니다. 서신원은 성경을 최우선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목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부분의 원우들도 이러한 성경 중심의 가르침에 매력을 알고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역의 현장으로 갔을 때 사역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는 올바른 통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배움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이후에 교회로의 발걸음은 참으로 가볍고 즐겁습니다. 나눌 것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신원에서 공부하는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각 파트별 교수님들께서 연구하신 내용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심에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양질의 배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이면 구약대로 신약이면 신약대로 그것들을 단단하게 정립해주는 조직신학까지 수업마다 빌드 업 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신원에서만이 만끽 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제 학업과 사역의 여정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체국에서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성으로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비전이 하나 있다면 순장 교단 내의 청년들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가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청년들에게 기독교 음악이라는 도구는 정말 큰 문화입니다.

이들에게 이것을 제외하면 청년의 때에 열정을 쏟을만한 도구가 세상의 문화로 살아가는 청년들에 비해 너무나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멀티미디어가 밀접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CCM 들에 필터마저도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해외의 CCM 곡들이 어느 교단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찬양인지조차 알지 못함 속에서, 단순히 멜로디가 좋다는 이유로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순장교단의 청년들에게 좋은 기독교 음악들을 소개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문화가 단단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학을 배우면서 알게 된 지식과 내용을 좋은 멜로디에 담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빙산의 얼음조각 하나 조차도 안 되는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은 마지막 학기까지 꿀 같은 강의를 들으며 잘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꿈꾸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NEWS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SEOUL BIBL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코로나19 진정국면에 개강예배 드리다

코로나19로 개강이 늦춰지고 인터넷으로 비대면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장의 이취임식도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는데, 코로나19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대면수업에 들어갔습니다. 5월 12일(화) 첫 대면 경건회는 학교 이사장이신 위거찬 목사님이 에베소서 6:4 "부모의 자녀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COVID-19 대응에 관한 교단 지교회에 보내는 총회장의 권고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순장) 총회장 이재성 목사는 교단산하 모든 지교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COVID-19로 인하여 매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께 총회 임원회를 통해 결정된 권고 사항을 시달했습니다.

COVID-19 대응에 관한 교단 지교회에 보내는 권고문

교단산하 모든 지교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COVID-19로 인하여 매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총회 임원회를 통해 결정된 권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달합니다. 참조하시고 교회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나가고,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순장) 총회장 이재성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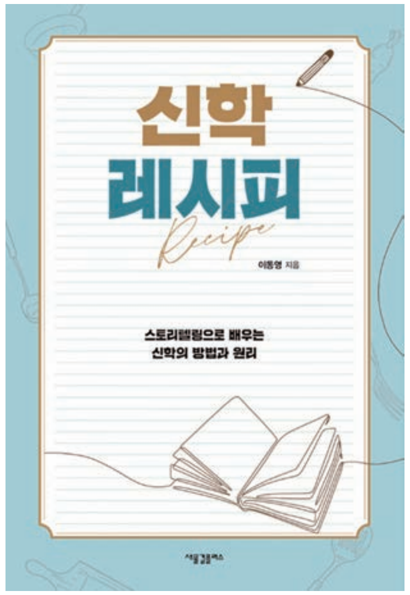
① 교단 산하 지교회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와 방역 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② 교회는 주일성수에 힘쓰되 그 외의 각종 예배와 모임, 소그룹 활동, 행사 등은 일시 중단하거나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도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연습하기보다 익숙한 찬송가나 특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③ 공예배를 포함하여 교회 내에서는 모든 직원들과 교인들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 주십시오(교회 내 마스크 구비 요망).
④ 교인 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예배 참석을 삼가 해주시고, 자가 격리 함께 소속교회 당회(혹은 담임목사)에 알려주십시오.
⑤ 교회의 공동 식사는 중단하고, 카페와 같은 친교 장소 운영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급식은 우유나 떡, 빵 등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⑥ 외부 사람들의 빈번한 출입 공간과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이단 집단이 "COVID-19" 감염 전파지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반 교회로 침투할 것이 우려되니 등록 교인 외의 교회 출입자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기 결석자가 예배 참석을 원할 경우 가정 예배를 권해 주시고, 새신자인 경우 마스크를 쓰게 하고, 정확한 신원이 확인된 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⑧ 교단내의 모든 연합 행사들은 취소나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주일도 잠정 연기하며, 신학교와 상의 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⑨ 본 교단의 성도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COVID-19 감염자와 그 가족, 감염자를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 이로 인하여 염려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지나친 공포감을 조장하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⑩ 만일 지교회의 주일예배에 감염 확진자가 방문하였거나 교인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지자체와 방역당국에게 즉시 통지하고 2주간 예배와 집회를 중지하고 대체 방안을 시행하되, 당회의 결의로 하시고 노회와 총회에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⑪ 각 지교회들은 교인들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경건한 삶을 회복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말과 행동에 더욱 유의하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25일

NEWS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SEOUL BIBL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본교 조직신학 이동영 교수 신간 출판 : 신학레시피(새물결)



신학 레시피
스토리텔링으로 배우는 신학의 방법과 원리
저자 이동영
출판 새물결플러스 | 2020.5.25.
페이지수 440 | 사이즈 152*225mm
판매가 24,000원

오늘날 '신천지'를 비롯한 사이비들이 활개 치며 교회를 흔들려 하고, 음모론, 가짜 뉴스, 신학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이 각종 매체를 떠돌며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위협한다. 이동영 교수의 『신학 레시피: 스토리텔링으로 배우는 신학의 방법과 원리』는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균형 잡힌 신앙의 든든한 기초를 확립하도록 도와줄 쉽고도 정통적인 조직신학 입문서이다. 『신학 레시피』라는 제목은 조직신학의 방법과 원리를 다루는 분야인 '신학서론'의 비유적 표현이다. 음식도 제대로 맛있게 만들려면 레시피(조리법)에 따라야 하듯이, 신학에도 레시피에 해당하는 방법과 원리가 있다는 것이다. 친숙하고 딱딱하지 않은 제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쉽고 재미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깊이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저자는 자신이 섭렵한 교부신학, 중세신학, 종교개혁신학, 동방신학, 로마가톨릭신학, 현대신학, 유대종교철학은 물론 인문학 전반에 걸친 해박하고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정연한 논리로 신학의 정수를 맛깔스럽게 담아내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신학이라는 학문에 투신하여 유럽의 여러 대학(빈, 암스테르담, 보훔)을 주유하며 오랜 세월 형설의 공을 쌓는 한편, 유럽의 목회현장에서 교회를 섬기기도 했던 친절하고 노련한 신학 교수로부터 신학의 기초 수업을 듣는 유익을 누릴 것이다. 딱딱하고 지루한 수업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슴에 절실히 와 닿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가득한 수업 말이다.

저자 : 이동영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Universit?t Wien) 고전어학부에서 고전어과정(라틴어, 헬라어)을 이수한 후, 동 대학교 개신교 신학부에서 울리히 쾨르트너 교수(Prof. Dr. Ulrich H. J. K?rtner)와 막스 수다 교수(Prof. Dr. Max Suda)의 지도하에 신학기초과정을 공부하였다. 오스트리아 빈에 소재한 현지 개혁교회인 츠빙글리교회(?sterreichisch-reformierte Gemeinde Zwinglikirche [HB])의 협동목사로서 한인교회인 빈 정동교회를 개척하여 12년 동안 담임 교역자로 사역하였다.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다. 저서로는 『송영의 삼위일체론: 경배와 찬미의 신학』(새물결플러스)이 있다.

기부금 내역

2020.03.01 ~ 2020.05.31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금액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미랑	김남희	남분식	안춘희	이예찬	전재덕	최수연	동인교회 권사회
강미영	김민석	박미란	양명환	이용대	전충현	최순봉	동천교회
강영숙	김병호	박소순	오미경	이준호	정보원	최영숙	- 유니게선교회
강화순	김선성	박순자	우윤해	이혜순	정복희	최옥례	동천교회 소망회
고명성	김선종	박순희	위거찬	임용태	정선녀	최주창	루디아장학회
공인애	김성희	박영복	유승인	임진화	정성기	최택규	연합전도회
구희원	김승자	박영선	유현희	장명분	정은희	최한이	겨자씨교회
권선애	김승희	박영심	윤석연	장석조	정의국	한성영	신원예닮교회
권태연	김영애	박예순	윤성자	장성길	정정희	현나영	염천교회
권태영	김윤재	박지호	이경아	장영철	조경휘	현소영	주님의교회
기성숙	김은태	박천수	이동영	장인성	조영철	현유광	춘천교회
길기한	김준모	서상국	이명순	장임순	진민우	현윤재	한천교회
김강호	김진환	손계숙	이성매	전계현	차명란	황기연	해맑음교회
김광자	김현숙	신은주	이세진	전양순	최경림	황태근	
김군자	나성엽	심은혜	이영순	전웅현	최손생	황희자	

발전기금 후원안내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는 여러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헌금에 힘입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열 교회와 전국장로회, 루디아 선교회 그리고 동천 유니게 선교회 같은 기관들이 매월 또는 분기마다 꾸준히 서신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0여명의 개인 후원자님들이 매월 한 구좌 5천원 또는 두 구좌 이상 후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후원이 서신원의 교수들과 직원들 그리고 원우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직 후원에 참여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금년 내로 매월 한 구좌(5천원)씩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가 가기 전 100명 이상의 새로운 후원자가 생기길 기대합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안내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의 발전에 뜻을 두고 계신 교회, 기업, 졸업생, 교직원, 재학생, 학부모 등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 월 1구좌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본 1구좌 = 월 5,000원, 10구좌 = 월 50,000원) 기한은 1년 또는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후원해주시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070)-7169-4100 손계숙 팀장에게 오전 10-12시, 오후 2-5시 사이 전화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특별후원 국민은행 040001-04-167081 (예금주: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농협은행 301-0043-7048-11 (예금주: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계좌로 후원하고자 하는 금액을 송금하신 후 (070)-7169-4100으로 후원 목적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